

연료 절감형 저연비 타이어 “인기”

실리카고무 사용 회전저항 줄여 연료 절감 ... 연간 17만-31만원 절약

고유가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연료절감형 타이어를 잇따라 출시해 온 타이어업체가 판매 효과를 특히 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기름값을 따지면 조금 비싸더라도 연료비를 줄여주는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소비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연비를 개선 타이어 <앙프랑>이 6월 출시된 이후 최근까지 일반제품 대비 145%에 상당하는 판매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5월 시판한 Bridgestone의 연료절감형 타이어 <B-STYLE EX>는 2008년 들어 제품수요가 급증해 초기 공급물량이 전량 소진됐고, 물량을 50% 확대해 추가 주문을 해 놓은 상태이다.

연료절감 타이어는 실리카 고무를 사용해 회전저항을 줄이는 것으로 제품가격은 일반 타이어에 비해 몇 만 원 정도 비싼 편이다.

하지만, 통상 최소 1년 이상인 타이어 교체 주기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연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관련업체는 강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연료절감 타이어 <엑스타 DX 에코>를 출시하면서 기름값 절약 효과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연료절감 제품과 일반 타이어를 각각 사용해 1년에 2만km를 시속 60km로 정속 주행했을 때를 비교해 보니 저연비 제품이 연간 17-31만원 가량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타이어도 차량 연비를 조절할 수 있는 한 요소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친환경 제품이 부각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타이어기업들이 저연비 타이어 개발 및 판매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05>